

엔교지 절 마니텐(노이린도)

마니텐(摩尼殿)은 엔교지 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가 경문을 외고 있을 때, 한 그루의 벚나무 주위에서 춤을 추는 천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천녀의 시(詩)는 여섯 개의 팔을 가진, 여의륜관음이라는 자비로운 보살이 살아 있는 나무의 모습으로 출현하는 광경을 읊고 있었습니다. 경문에 따르면 여의륜관음은 장수와 번영의 보살로서 어떤 시대에도 모든 생명체가 극락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쇼쿠 대사는 이 이상에 큰 영감을 받아 벚나무에 여의륜관음의 모습을 조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불당을 지었습니다. 그 후 970 년에 불당과 여의륜관음을 중심으로 노이린도(如意輪堂)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불당은 1174 년에 고시라카와 법황(1127~1192)이 엔교지 절을 찾아 관음상을 보고 싶다고 요구할 때까지 닫혀 있었고 여의륜관음상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고시라카와 법황이 여의륜관음상을 보았을 때, 이 불당을 현재의 이름인 ‘마니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마니는 불교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보석을 의미합니다. 마니텐은 네 번 재건되었는데, 건물은 매번 벚나무가 서 있었던 장소에 지어졌습니다.

마니텐 안쪽에는 제단 뒤의 벽에 두꺼운 옷칠을 한 세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 안은 사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는 방입니다. 1년에 한 번, 1 월 18 일에 이 문을 개방하고 새해의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전(슈쇼에)이 열립니다.